

도서관 내 이용수칙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안군립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입니다.

무안군립도서관이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이용객들이 모입니다. 그만큼 각자 생각하는 이용수칙 기준도 다를 것 같아 이에 대해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상당수는 소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인 공공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느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여러 불편했던 점들을 모아 이용수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문을 씁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해 본 이용수칙 예시와 그에 대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안군립도서관 내 이용수칙 9가지(예시)>

1. 대화금지
2. 통화금지
3. 휴대폰 무음모드 (벨소리X, 진동모드X)
4. 영상 시청 시 이어폰, 헤드셋 이용하기
5.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소음 주의하기
6. 계단 통행 시 최대한 조용히 다니기
7. 음료 외 음식물 섭취금지
8. 여러 좌석 장시간 점유 금지 또는 자제하기
9. 본인이 이용한 자리 정리정돈하기

1. 대화금지

도서관 내 기본 이용수칙은 바로 '정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인과 같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필요한 말은 가급적 조용히 짧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거나 같이 학습 또는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1층에 다가온, 2층에 꿈틀이카페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화금지

도서관 내에서 통화하는 이용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통화금지 또한 도서관 내 매우 중요한 기본 이용수칙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며 하루에 2~3번 이상은 전화벨소리와 함께 통화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내 통화금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휴대폰 무음모드 (벨소리X, 진동모드X)

휴대폰 알림소리는 도서관 내 통화문제와 쌍벽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SNS와 전화벨소리로 집중이 많이 깨집니다. 진동소리 또한 소리는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진동이 주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벨소리도 끄고 진동모드도 끈 무음모드를 해야합니다.

4. 영상 시청 시 이어폰, 헤드셋 이용하기

간혹 영상소리를 아주 작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내부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영상 시청과 음악을 들을 때는 꼭 이어폰과 헤드셋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주시고, 이어폰과 헤드셋에서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음량조절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5.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소음 주의하기

도서관 내에서는 컴퓨터 좌석을 이용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도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다른 이용객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키 스킨이나 무소음 마우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타자 소리, 마우스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계단 통행 시 최대한 조용히 다니기

도서관 내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은 구조적으로 통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뛰어다니거나 대화하는 것 등은 자제하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소음을 줄이는 폭신하고 얇은 소재의 러그 같은 것을 깔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음식물 섭취금지

도서관에서 물과 음료 이외에 과자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리와 냄새가 발생하고 좌석 위생 문제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좌석 여러 개 장시간 점유 금지 또는 자제하기

좌석을 이용할 때 본인의 짐을 옆자리 의자에 두고 두 좌석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옆자리에 좌석 몇 개씩을 공책이나 책, 휴대폰 등으로 지인의 자리까지 막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을 땐 도서관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용객이 많아지는 시기엔 좌석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기간에는 자리가 만석이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지인의 자리를 막아두는 것은 지인이 금방 오면 괜찮겠지만, 몇 시간이고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몇 시간 동안 해당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도 이용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물품을 강제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좌석 장시간 점유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본인이 이용한 자리 정리정돈하기

누군가 이용한 좌석을 앉으려고 할 때, 지우개 가루, 쓰레기 등이 책상 위에 남아있거나 의자가 제대로 안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는 제대로 놓지 않으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각자 이용한 자리를 잘 정리를 한다면 좌석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비록 예시이지만 도서관 내 소음문제와 이용문제에 대한 이용수칙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고 자세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용수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문의 형태와 크기, 위치들도 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도서관 내 있는 안내문들은 잘 보이지 않거나 위치마다 안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된 이용수칙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관 들어오는 입구와 주요 좌석 구역마다 기둥에 배치하는 등 여러 곳에 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 수행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내문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이용수칙을 인식시켜서 소음 발생을 줄이고, 소음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더욱 쾌적한 도서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함께 바로잡아 나가고,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올바른 공공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건강한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모두가 모범이 되는 무안군의 문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